

건강 칼럼

초기 유방암, 멍울·통증 등 이상증세 없어

유방암에 걸리면 유방 속에 멍울이 잡히거나 유두의 피부가 변형되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유방암에 걸리면 이러한 의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나, 초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별다른 증세가 없어 환자가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즉,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유방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아무런 증세도 나타나지 않는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암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는 초기 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8%에 달하며 림프절에 전이가 되지 않는 경우 79%나 된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비암에 발견된 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81%였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사례도 전체의 58%에 불과하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35세 이상 여

성들에게 매달 자가검진을 진행하면서 2년에 한번씩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가의 진찰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 30세 이상에게는 매월 자가 검진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40세 이상부터는 1~2년 단위로 유방X선 촬영을 권고한다. 유방암 자가검진은 생리가 끝난 후 샤워 뒤에 실시하는 편이 가장 좋다. 이 시기의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 보다 정확한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유방에 작은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지, 유두가 함몰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류진우  
천안 앙즈로여성병원 원장

서거나 얇은 자세에서 직접 가슴을 촉진해보아야 한다.

유방암 검사는 주로 유방 X선 촬영과 유방초음파 등을 통해 진행하는데 유방 X선 촬영의 경우, 촬영 기기로 유방을 상하좌우에서 압박하여 총 4장의 사진을 찍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환자들이 꺼리는 편이다.

그러나 유방을 세계 놀러 유방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적은 양의 방사선으로도 보다 정밀한 화면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통증을 참고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단, 2~30대 여성에게는 굳이 유방 X선 촬영을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유방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X선 촬영으로 병변을 진단하기 어려운 데다 오히려 X선에 자주 노출되는 편이 유방암 발병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단,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검사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미리 상담해 보아야 한다.

검사 결과 석회 결절이나 혹 등이 발견되어 매우 불안해 하는 환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암이라 볼 수 없으며 맘모그램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적정량의 유방조직을 채취하여 병변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유방암으로 밝혀져서라도 초기에 발견한 경우, 수술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고 유방재건술 등을 받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유방외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여성 건강과 자신감을 모두 회복할 수 있다.

사설

급증하는 메신저 피싱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결제 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계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알려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최근 어느 50대 남성 학부모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중학생인 딸이 자신의 핸드폰 액정이 고장이 나서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보낸다면서 부모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물었다.

남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에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딸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다.

딸을 사칭한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었던 것이다. 대부분 학부모들은 학교에 간 자녀가 휴대폰이 뭐가 안 돼서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부모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워낙 급하다고 하니가 깜빡하면 속이 넘어가기가 쉽다.

경찰을 피싱범으로 가정하고 휴대전화에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봤다.

기자의 인증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줬더니 경찰이 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피싱범에게 이런 정보가 넘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되거나 게임머니 등이 결제돼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자신을 사칭해 신용카드나 신분증 정보를 빼낸 다음 결제하는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늦어지는 특징이 있다.

전북의 메신저 피싱 범죄는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260건으로 5.7배나 급증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 등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딸, 아들을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메신저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를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의심될 때에는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상한 문자를 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문제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승차 시설이 열악하고 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하다.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나쁜 인상을 주고 있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1973년에 준공됐다. 이후 48년이 지났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이용객들의 안전 위험은 물론이다.

대기 장소도 부족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의 규모는 2632㎡로 군산시외버스터미널(7,923㎡), 익산시외공용터미널(6,527㎡)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특히 일선 시·군 단위 터미널보다 노후화가 더 심각하다.

터미널 입구 도로의 교통 상황부터 매우 복잡하다. 낡고 험소해 마치 70~80년대 시절 모습을 연상시키게 한다.

전북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다. 인근 전주 천 등 주변 환경 또한 어수선하

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과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은 걸어서 5분 거리이다. 1980년대 지어진 고속버스 터미널은 2015년 150억 원을 투자하여 재건축을 해서 그나마 시설이 개선됐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도 2만 4897㎡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터미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지난 2016년에 세워졌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다.

터미널 사업자, 토지·건물주, 상인들 간의 보상 가격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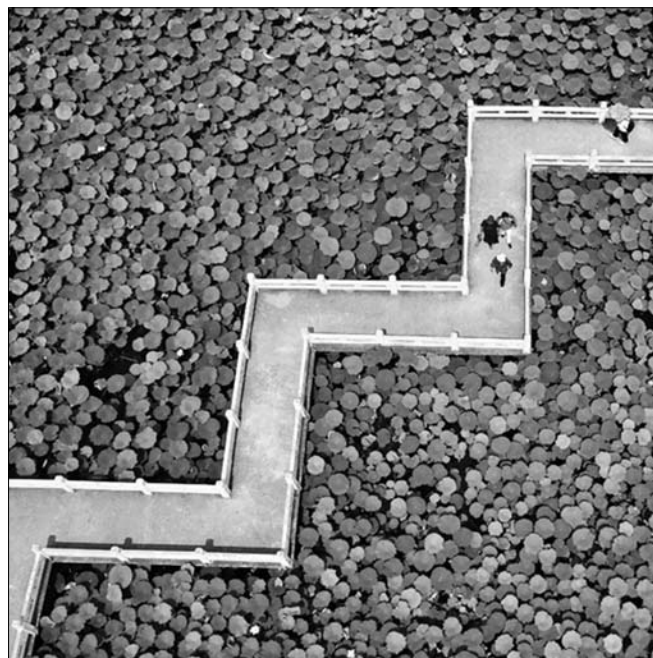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 전북 대중교통의 중심 거점이다.

도내 14개 시 군과 연결되는 곳이다. 전북의 심장고도 같은 곳이다. 언제까지 낡고 초라한 전북의 관문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답한 일이다. 전주 터미널을 복합 문화 공간화한 광주와 대구, 대전의 사례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때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연꽃 감상하는 관광객들



22일(현지시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인롱의 한 연꽃명소에서 방문객들이 산책로를 따라 연꽃을 감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찰과 충돌한 원주민 시위대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의 의사당 앞에서 환경 화살을 든 원주민 시위대가 시위 도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브라질리아에 상경해 캠페인하며 머물고 있는 원주민 시위대는 보호구역 축소 법안(PL 490) 반대와 자이르 보우소니루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최루탄을 쏘며 경찰과 충돌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